지역 소식통

부안,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부안군은 2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이해 산사태 취약지역 토석류 피해 예측 영향권 내에 있는 상서면 용서리 마을 일대에서 '2024년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50여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예측정보 수신 △상황 판단회의 △산사태 예보 발령과 상황전파 △주민대피 등을 실시했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와 잦은 이상 강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군민들이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과 대피체계에 대하여 숙지하셨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서울·경기지역 대상 추진

정읍시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지역에 관심 있는 관계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50+세대(40~65세)를 대상으로 '2024년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등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수도권 중장년을 전문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경영체에 배치해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도권 중장년에게는 일 경험(일자리) 활동과 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정읍시 활동자로 선정된 9명은 지난 23일 지역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3개월간 정읍에 체류하면서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 내 기업에서 홍보, 컨설팅, 관로개척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 정착 위해 총력

주거비 지원·대출이자 혜택 대폭 확대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주거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시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부서별 인구정책 관련 정보를 하나로 묶어 '2024년 정읍시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출산·양육 △교육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기타 편의 정보 등 총 5개 분야 77개의 사업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인구정책 안내서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http://jeongeup-ebook.kr/2024-info)로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청년 대상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우선, 청년세대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서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으로 확대했다.

지원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183세대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3억 25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이와 함께, 지역내 대 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비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각 사업별 신청접수는 연 2회(주택자금: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대학생 주거비용: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시행 중이며,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부터 확대 추진중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년대비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에서도 계속해서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발굴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주요 시설물 집중 점검 나서

한서요양병원 등 107개소 대상 집중 점검… 안전사고 예방 총력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기 위해 한서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중심의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은 28일 분야별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 15명과 함께 한서요양병원에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점검대상인 한서요양병원은 2008년 준공된 건물로 의료인력이 200명에 달하고 420여개의 병실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다.

이날 점검에는 각종 점검계측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직접 확인이 어려운 시설물 상부와 벽체 균열 등의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9일에는 송금현 부시장이 나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천사히어로즈와 국민여가캠핑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의료 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는 안전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4월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복지시설, 숙박, 교통 시설 등 107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74개소의 시설물 점검을 완료(69%)했으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험성이 높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해 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울산광역시 중구는 부안군을 방문해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지난 27일 친선 축구경기 및 화합행사를 추진했다.

부안군-울산 중구, 친선도시 교류행사

친선 축구경기 열어

울산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부안군(군수 권익현)을 방문해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지난 27일 친선 축구경기 및 화합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양 도시 간 문화, 관광, 체육, 행정, 민간 등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교류행사로 권익현 부안군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의회, 사회단체장 및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부안군과 울산 중구 직원으로 구성된 선수 30여 명은 친선 도모를 위한 축구경기를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진행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친선결연 도시인 울산 중구와 우리 군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기원하고, 지자체간 따듯한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중구는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부안군과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운곡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성료

82종의 습지식물 확인

고창군 운곡습지에서 열린 '고창 운곡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회'가 놀라운 종 다양성을 눈으로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25일 (사)한국식생학회와 (사)한국생태학회 등 전문가 20명과 일반인 70여명은 운곡습지 전역에서 식물탐사, 곤충탐사, 양서파충류 및 포유류탐사, 조류탐사 4개 팀(5개 분류군)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이날 식물은 362종, 곤충은 138종, 양서류는 9종, 파충류는 6종, 포유류는 10종, 조류는 19종을 찾을 수 있었다.

식물 중 가시연꽃, 진노랑상사화, 수달, 삵,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 5종, 산림청 지정 보호종인 낚지다리 1종, 붉은배새매와 두견의 천연기념물 2종 등 총 544종의 생태 보물을 발견했다. 식물탐사단이 찾은 보물 중에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노랑어리연꽃, 물쑥, 왕미꾸리광이 등 82종의 습지식물을 찾아 운곡습지의 놀라운 종다양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곤충탐사단이 찾은 보물중에는 산제비나비, 노랑나비, 사향제비나비, 검은물잠자리 등의 다양한 나비류와 잠자리류 그리고 수서곤충이 탐사됐다.

양서·파충류는 무당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누룩뱀 등이 탐사되어 습지생태계의 건전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운곡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곤충류와 양서·파충류의 서식은 이들 동물을 먹이자원으로 하는 조류와 수달, 삵 등의 보금자리도 만들 수 있어 운곡습지의 높은 생태적 가치를 말해주고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운곡습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